

무사사회의 도덕규범

- 조선 사절이 본 일본인의 도덕의식 -

박상휘*

- I. 서론
- II. 일본에 오류가 존재하는가?
- III. 규율을 준수하는 일본인
- IV. 헌신적 행위와 군대질서
- V. 결론

<국문초록>

일본에 다녀온 조선 사절들은 근면하게 일하며 명령에 잘 복종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절들은 일본인의 행동규범의 근거에는 조선과 다른 독특한 도덕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본고의 주제는 일본인의 도덕의식이 사절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우선 조선 사절들이 일본에 오류도덕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사절들이 일본인의 상하관계의 관념, 도덕의식, 준법의식 등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절들이 일본인의 도덕의식을 군대규율과 연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쟁을 통해 형성된 일본의 도덕규범에 대해 사절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핵심어: 조선 통신사, 사행록, 도덕, 오류, 군대규율, 사회규범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조선시대 일본을 다녀온 조선 사절들이 일본사회의 도덕 규범 및 일본인의 도덕의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¹⁾ 조선 초기에 편찬된 『삼강행실도』의 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곧고 어질고 고결한 사람을 보면 흠모하고 존경을 다해 손을 들어서 이마에 대며 그를 위해 채찍 잡은 마부 노릇이라도 하기를 원한다. 구차하고 천하고 더러운 사람을 보면 침 뱉고 꾸짖어도 모자라 팔을 걷어붙이며 몹시 분개하고 손수 그 목을 찌르려고 하기까지하니, 이는 인심의 같은 바이며, 천리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이다.²⁾

선량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반면 사악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져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이라는 말이다. 『삼강행실도』의 서문이나 발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도덕에는 과급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굳건한 도덕적 의지를 견지하고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마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변 사람 또한 그 내면적인 순결함에 영향을 받아 감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의 전파력 및 도덕성에 감화되는 타고난 심리에 의거하여 평화롭고 평온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목적 하에 편찬된 것이 『삼강행실도』이다. 부모가 궁지에 몰렸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에 나서는 효자의 모습, 적군

1) 본고에서 '도덕규범'은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된 행동기준을 의미한다. 유교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부모, 부부, 군신 사이의 윤리적 유대의식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행동양식 또한 '도덕규범'에 포함된다. 또 '도덕의식'은 전통적 내지 사회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규범에 따름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리킨다. 유교적인 덕목이나 예적(禮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규율을 준수하려는 의지 또한 '도덕의식'에 포함된다. 본고는 유교사회와 무사사회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 내지 부합하는 양상을 다룬다. 논문의 성격상 논의의 범주를 좁히는 것보다 넓히는 것이 적절하다. 논지가 산만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나 양국 간에 존재하던 가치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크게 잡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見貞良高潔之人，則忻慕致敬，舉手加額，願爲之執鞭焉；見苟賤污穢之人，則唾罵不足，攘袂扼腕，至欲手刃其頸也。是則人心之同然，而天理之不泯也。”(『東文選』 권103, 장25, 鄭招, 『三綱行實錄』.)

의 항복 요청을 거부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충신의 모습, 죽은 남편의 부모를 봉양하고 완강히 개가를 거부하는 열녀의 모습 등 봉사할 대상은 다르더라도 이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제일 숭고한 윤리적 가치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 삶을 바치는 것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삶의 방식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적 신념을 견지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칭송하는 사고방식은 유교사회뿐 아니라 무사사회에도 존재하였다.

에도시대 일본의 유학자인 야마가 소코(山鹿素行)는 “무릇 사무라이의 직분이란 자신을 돌아보고 주인을 얻어 봉공의 충성을 다하여 봉우들과 신의를 두텁게 하여 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의(義)를 오로지 하는 데에 있다.”³⁾라고 하며 주군을 충실하게 섬기고 신뢰심이 있는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사의 의무라고 하였다. 에도시대 말기에 기록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무사의 본분은 세상의 거울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선악정사(善惡正邪)를 규명하여 상벌을 바로잡는 직분에 있으니,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고 목숨을 던져 충성을 다하여 의리를 본분으로 삼아 효도를 세우는 것이다.⁴⁾

에도시대 일본에서도 주군이나 가업에 대해 충성을 다하여 봉공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실제로 『삼강행실도』는 에도시대에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고,⁵⁾ 『삼강행실도』의 내용은 일본의 문학작품에 반영되기도 하였다.⁶⁾

3) “凡そ士の職と云は、其身を顧み、主人を得て奉公の忠を盡し、朋輩に交て信を厚くし、身の獨りを慎で、義を專とするにあり。”(山鹿素行, 『山鹿語類』; 井上哲次郎 監修, 佐伯有義・植木直一郎・井野辺茂雄 編集, 『武士道全書』 제3권, 國書刊行會, 1999, 138면.)

4) “武士の行狀は世の中の鑑となり、人の善惡邪正を糾明し、賞罰を執るべき職分にして、少しも奢らず、また諂はず、いささかも欲なく、身命を國家に抛つて忠を盡し、孝を立つべきものなり。”(武陽隱士 著, 本庄榮治郎 校訂・奈良本辰也 補訂, 『世事見聞錄』, 東京: 岩波文庫, 1994, 20면)

5) 아사이 료이의 번역에 대해서는 김영호,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조선판 『삼강행실도』 번역과 의도』, 『일어일문학연구』 제79집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일본을 다녀온 조선 사절들 또한 일본인의 헌신적 행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사절들은 의무·과제·명령을 충실히 실행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규범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기록하였다. 그들 또한 일본인의 도덕성에 감동을 받을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사사회에 통용되는 도덕규범은 유교사회의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또 일본인의 도덕의식은 조선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사절들은 일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도덕규범에 대해 어떠한 위화감을 드러냈는가? 조선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구성된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일본인의 모습은 사절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사절들은 일본인들의 도덕의식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도덕성에 관해 유교사회와 무사사회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사행록에 보이는 일본인의 도덕의식에 대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기존연구는 아직 없다. 조선 통신사 연구에서 전혀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고는 일본 사상사 연구의 맥락에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 조선 사절들은 주로 질서정연한 사회와 규율을 잘 지키는 일본인의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사회의 질서형성에 주목한 연구로 나루사와 아키라(成澤光)의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규율화되었고, 사회의 질서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탐구하였는데,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도시대의 사회규범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⁷⁾ 또 마에다 쓰토무(前田勉)는 군대규율에 가까운 형태로 통제된 에도시대 일본사회의 ‘병영국가(兵營國家)’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병학(兵學)’이 지배사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⁸⁾ 유교사회에서 온 사대부들에게 일본인의 규범의식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일본인의 도덕적 관념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참조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에 대해서는 최박광, 『조선통신사와 일본문학 - 『삼강, 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참조.

7) 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옮김,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소화, 1997.

8) 前田勉, 『近世日本の儒學と兵學』, 東京: ぺりかん社, 1996.

II. 일본에 오륜이 존재하는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도덕이란 오륜(五倫)을 의미하였다. 조선 사절들도 오륜의 틀에 입각해 일본인의 도덕의식을 파악하고 있었다. 오륜이란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 다섯 가지의 도덕을 말한다. 일찍이 에도시대 일본의 지식인인 니시카와 조켄(西川如見)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의 오륜은 사람뿐만 아니라 조수어충(鳥獸魚蟲)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륜이 있다. 하물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므로 오륜의 도에 이주 두렵다. 이 때문에 충성이 없고 효도가 없는 사람은 조수어충에도 미치지 못하니, 뭐라고 부르며 뭘까? 그러므로 중국도 우리나라도 성인도神明(神明)도 오륜의 도를 가지고 만민의 가르침으로 삼아 천하를 편안하게 다스리려한 것이다.⁹⁾

에도시대에 생존한 일본 사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오륜이 교육의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 지식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도 『무사도(武士道)』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엄밀한 의미의 도덕적 교의(教義)에 있어서 공자의 교훈은 무사도의 가장 풍부한 연원이었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그리고 붕우 사이에 존재하는 오륜의 도는 경서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민족적 본능이 인지하고 있던 바였으며, 공자의 가르침은 이것을 확인했을 뿐이었다.¹⁰⁾

9) “君臣, 父子, 夫婦, 兄弟, 朋友の五倫は, 人のみにあらず, 鳥獸魚蟲に至るまで, みな五倫あり. まして人は萬物の 靈なるゆへに, 五倫の道に全く厚し. しかるに不忠不孝の人あるは, 鳥獸魚蟲にもあらず. いかんと名附べきぞや. 此故に唐も本朝も, 聖人も神明も, 五倫の道をもって, 萬民の教としたまひ, 天下を安く治め給はんとの事也.” (西川如見 『百姓囊』; 西川如見 『町人囊』; 百姓囊・長崎夜話草, 岩波文庫 1985, 196면.)

10) “嚴密なる意味においての道徳的教義に關しては, 孔子の教訓は武士道の最も豊富なる淵源であつた. 君臣, 父子, 夫婦, 長幼, ならびに朋友間における五倫の道は, 經書が中國から輸入される以前からわが民族的本能の認めていたところであつて, 孔子の教えはこれを確認したに過ぎない.” (新渡戸稻造, 矢内原忠雄 譯 『武士道』, 東京: 岩波文庫, 2004, 34~35면.)

니토베 이나조에 의하면 오류에 해당되는 도덕성은 중국의 고전이 들어 오기 이전부터 일본에 존재하였으며 무사도는 유교와 상통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정치학자인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도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주자학적 질서의식과 주군과 신하의 군신관계를 강조하는 무사사회의 사회질서의 적합성을 지적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리하여 위아래를 꿰뚫고 있는 주종관계와 당주(當主)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제관계는 근세 일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인 결합양식으로 되었다. 이런 사회는 봉우간 이외의 사회관계를 모조리 군신관계와 가족(부자, 부부, 형제) 관계로 집약시켜버린 유교적 사유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오류이라는 도덕은 근세 봉건사회의 이른바 “근본적인 규범”(basic normative standard)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¹¹⁾

오류도덕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견해이다. 그런데 일본에 다녀온 조선 사절 중에서 일본에 오류도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일본인의 도덕의식은 오류도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655년의 사행에 참여한 남용익(南龍翼)은 일본에 오류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살폈다. 우선 군신 관계에 대해서는 “군신 간에서는 명분이 한 번 정해지면 분주하게 일에 종사하는 것이 지극히 공손하며 대우에 따라 보답을 한다.”¹²⁾라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군신관계의 명분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전의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가 죽자 두 명의 신하가 뒤를 따라 자결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태수에게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태수에게 발로 차이는 것을 원망하여 태수를 죽인 후에 자신도 자결했다는 일화를 기록하였다.¹³⁾ 주군이 죽은 후 총애를 받은 신하가 할

11) 丸山眞男, 김용욱 옮김, 『日本政治思想史研究』, 통나무, 1995, 324면.

12) “君臣之間, 名分一定, 則奔走服役, 極其恭恪, 隨其接遇, 以爲報答.”(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번역, 하는 데에 있어 『국역 해행총제』, 민족문화추진회, 1982를 참조하였다. 다른 책을 인용할 때도 번역본을 참조한 경우는 번역자 이름과 서지사항을 적었다. 경우에 따라 필자가 번역을 고쳤다.

13) “前關白之時, 有執政阿部對馬守奉行本田加賀守者, 皆被寵眷. 關白之死, 二人携手出城, 臨

복자살하는 것을 순사(殉死)라고 하는데, 무사사회에서 순사는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남용익은 이러한 군주와 신하 사이에서 일어난 일화를 언급하고서 “그들의 풍속은 한결같이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나 원한을 갚는 것이 이와 같다.”¹⁴⁾라고 기록하였다. 오류 가운데 군신관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아주 비슷한 양태로 드러났는데, 일본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순사나 복수 행위는 남용익의 눈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비친 것이다.

다음으로 부자(父子)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용익은 “부자간에는 엄격히 공경하는 도리가 없다.”¹⁵⁾라고 하여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드러내었다. 그는 “다이라 요시나리(平義成)의 아들 요시자네(義眞)가 자신의 아버지와 한 줄에 섰고 한 자리에 같이 앉았다. 무식한 하인들은 그 부모를 길가는 사람처럼 보고 나이 들고 늙어도 전혀 돌보고 봉양하지 않는다.”¹⁶⁾라고 지적하고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운봉(雲峰) 사람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일본에서 아내를 얻어 자식과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의지할 곳 없어 곳곳에서 구걸하니 우리나라 사람에게 울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 풍속에 윤리가 없는 게 이와 같다.¹⁷⁾

1617년에 사행한 이경직(李景稷)도 “지친(至親)을 보는 것이 길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 윤기(倫氣)가 끊어졌으니, 하나의 금수가 사는 곳이다.”¹⁸⁾라고 하였다. 『맹자집주(孟子集註)』에 “목자는 사랑에는 차등이 없어 지친(至親)을 보는 것이 중인(衆人)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다고 한 것이다. 아버

歧相訣, 各就其家, 加賀守即自刎而死, 對馬守招其妻, 執盃與訣, 其妻泣止之, 則正色拂衣而起, 自刺其腹而死. (….) 且名護屋主將寺澤兵守庫者, 有十七歲侍童, 最爲愛昵, 偶因微過, 以足蹴之, 其童即拔劍刺殺, 仍刎其腹而死云.”(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14) “其俗之輕生一也, 而恩怨之必報如此.”(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15) “父子之間, 無嚴敬之道.”(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16) “平義成之子義眞, 與其父同列而立, 同席而坐, 無識下輩, 則視其親如路人, 年老之後, 全不顧養.”(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17) “有我國雲峰人被擄, 娶妻於此, 多產子女, 而不得依賴, 處處丐乞, 泣訴於我國人, 其俗之無倫理如此.”(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18) “視其至親, 無異路人, 倫氣數絕, 卽一禽獸之場也.”(李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조; 『국역 해행총제』 III, 144면.)

가 없고 임금이 없으면 인도(人道)가 끊어지니, 이 또한 금수일 뿐이다.”¹⁹⁾라는 말이 있다. 이경직은 이 말을 의식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결여된 일본의 풍습을 비판한 것이다. 유교사회에서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효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삼강행실도』에서도 우선 부모에 대한 효도가 가장 중요한 덕성으로 강조되어 있다. 조선사대부의 눈으로 볼 때 일본은 ‘윤리’가 결여된 나라로 보인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도 남용익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쳤다. 그는 “부부간에 있어서는 혼인할 때의 분별이 없다. 왜황(倭皇)이 황후를 맞아들일 때 반드시 같은 친족에서 선택하여 동성(同姓)의 3, 4촌을 피하지 않으므로 나라의 풍속이 모두 그렇게 되었다. 형수와 아우의 아내도 모두 첩으로 삼아 같이 산다.”²⁰⁾라고 하였다. 1719년에 사행한 신유한도 “결혼할 때 동성(同姓)을 피하지 않고 친척남매끼리도 서로 혼인한다. 형수와 아우의 아내가 과부가 되면 또한 데리고 같이 산다.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이 곧 금수와 같다.”²¹⁾라고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경민편(警民篇)』에는 “친족 간 상간(相姦)의 경우 매우 가까운 친척이면 사죄(死罪)를 내리고, 조금 먼 친척이면 그 관계를 따져 벌의 등급을 낮춘다.”²²⁾라는 말이 보인다. 조선에서는 친족 간의 상간은 사형에 해당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친족 간의 결혼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남용익은 일본에서 행해진 남색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나이 어리고 아름다운 사내아이를 제일 좋아하여 ‘와카슈(若衆)’라고 부르는데 항상 같이 자며 생사를 위탁하여 맹약을 맺을 때는 손가락을 베고 넓적다리를

19) “墨子愛無差等，而視其至親無異衆人，故無父。無父無君，則人道滅絕，是亦禽獸而已。”(『孟子集註』「滕文公章句」，下)

20) “夫婦之間，婚娶無別，倭皇納后，必擇其族，不避同姓三四寸。故國俗皆然，兄嫂弟妻，皆爲率畜。”(南龍翼，『聞見別錄』，風俗，「性習」；『국역 해행총재』 VI, 78면) ‘率畜’는 ‘率畜’의 오기로 보인다.

21) “婚姻不避同姓，從父兄妹，相與嫁娶，兄嫂弟妻寡居，則亦爲率畜，淫穢之行，便同禽獸。”(申維翰，『海游錄』，下，「聞見雜錄」；『국역 해행총재』 II, 50면.)

22) “親屬相奸，切親則死罪，疏親則以次減等。”(金正國，정호훈 역，『警民篇』，아카넷，2012，197~198면.)

찌르기까지 하여 정의(情義)의 무거움이 아내보다 갑절이나 된다고 하니, 그들의 풍속이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다.²³⁾

남용익이 지적한 대로 일본에서는 ‘와카슈(若衆)’라는 동성애를 즐기는 사 람들이 존재하였다. 에도시대의 풍속을 상세히 기록한 기타가와 모리사다(喜 田川守貞)는 일본에서 동성애는 예부터 있었음을 지적하고서 “특히 전국시대 에는 전쟁터에 여자를 데리고 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색이) 성행하였으 며, 승평(昇平: 에도시대를 말함-인용자) 초기에도 그 여풍(餘風)이 있어서 미소년을 둘러싸고 싸움도 왕왕 일어났다는 사실이 여러 책에 쓰여 있다.”²⁴⁾ 라고 기록하였다. 각지에 원정해야 하는 무사들은 여성처럼 생긴 소년들을 전쟁터까지 데리고 가 욕구를 채웠는데, 남색의 풍습은 에도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말이다. 기타가와 모리사다는 에도에는 ‘남색루(男色樓)’, 즉 남색 전용의 창관(娼館)이 곳곳에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문화 11년(1814)의 사본(寫本)인 『진총담(塵塚談)』에 따르면 남색루(男色樓)가 제 일 성행한 요시초(芳町)를 비롯해 고비키초(木挽町), 유시마텐진(湯島天神), 고지마 치텐진(麴町天神), 누시초다이치(塗師町代地), 간다하나후사초(神田花房町), 신메 이마에(神明前) 일곱 군데에 3,40년 전까지는 있었다고 한다. 근년에는 네 군데가 사라지고 요시초, 유시마(湯島), 신메이마에만 남아 있다. 3,40년 전의 요시초에는 100여 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극장에 나와 노래와 춤을 하는 이들을 부타이코(舞 臺子) 또는 이로코(色子)라고 부르는데, 4,50명이나 있었다. 이로코(色子)들은 모두 곧 배우가 된다.²⁵⁾

이처럼 에도의 한 가운데에 아주 번성한 남색 전용의 창관이 있었으며,

23) “最愛年少美童，稱以若衆，居常同寢，托以死生，結約之時，至於割指割股，情義之重，倍於其妻云，其俗之反常如此”(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재』 VI, 78면.)
 24) “特に戰國の時は陣中に婦女を携ふることの難きにより盛に行れ昇平の初にも其餘風ありて美少年をいどみ往往争闘ありしこと諸本に有之”(喜田川守貞, 『類聚 近世風俗志 下』, 第20編 娼家 下, 東京: 吉川弘文館, 2012, 166면.)
 25) “文化十一年寫本塵塚談云男色樓芳町を第一として，木挽町，湯島天神，麴町天神，塗師町代地，神田花房町，神明前此七ヶ所二三十年以前迄樓ありけり近年は四ヶ所絶て芳町湯島天神明前のみ殘る三四十年前は芳町に百餘人もありける由此内より芝居へ出て歌舞するを舞臺子と云又色子とも稱して四五十人もあり此色子とも末末は皆役者になれり.”(위의 책, 167면.)

창관 출신의 소년들 중에는 배우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사절들의 입장에서는 부부를 논하기 이전의 차원에서 일본의 남녀도덕은 이미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남용익에게는 이상하게 비쳤다. 그는 “장유(長幼) 간에도 역시 배례(拜禮)와 읍례(揖禮)가 없다.”라고 하며 일본식의 배례법(拜禮法)을 언급하고서 “그 나라 풍속에서 예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²⁶⁾라고 기록하였다. 남용익은 장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느낀 것이다. 마지막에 봉우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봉우간에는 서로 재화(財貨)를 주고받으며 의기(意氣)를 숭상한다. 비록 대등하거나 손아래 사람에게도 말은 반드시 경어를 쓰며, 한 번 승낙을 하면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이들도 흔히 있으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서로 칼로 싸우기도 한다.²⁷⁾

서로 봉우로서의 맹약을 맺으면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나 한 번 균열이 생기면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남용익은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시체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다메시거리(칼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체를 베어보는 일)를 한다고 하고서 “그 풍속이 잔인한 것은 이와 같다.”²⁸⁾라고 끝을 맺었다.

부모를 친애하는 정도 희박하고, 친족끼리도 결혼하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배례하는 방법도 이상하고, 친구끼리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등, 조선 사절의 눈으로 볼 때 일본에 오륜도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혈연간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적어도 조선 사절 눈으로 볼 때 일본은 유교적인 도덕규범이 침투한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26) “其俗之不知禮如此。”(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27) “朋友之間, 通財貨尙意氣, 雖是平交降等, 言辭則必敬, 然諾之後, 則爲之報仇, 捐軀者比比有之, 而一拂其意, 則輒相刺殺。”(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28) “其俗之殘忍如此。”(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III. 규율을 준수하는 일본인

일본의 요률평은 엉망이라는 것이 남용익의 견해이다. 그런데 일본의 풍습이나 생활습관을 논한 남용익의 글 중에는 일본인의 행동거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있다.

성품이 꿇좌(跪坐)를 좋아하여 어떤 때는 종일토록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련에도 위좌(危坐)를 잘하며 응대하는 태도가 어른들과 같다.²⁹⁾

‘궤좌(跪坐)’ 내지 ‘위좌(危坐)’는 일본의 ‘세이좌(正坐)’, 즉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을 말한다. ‘종일토록 무릎을 모으고 꿇어앉다.[終日斂膝危坐]’라는 말이 『소학』에 보이는데 조선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은 근면함을 가리키는 바람직한 자세로 여겨졌다. 이러한 단정하게 앉아 나태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사행록 곳곳에 보이며, 이 모습을 통해 사절들은 일본인에게도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관념이 존재함을 포착하였다.

1617년에 사행한 이경직은 ‘명분(名分)’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본인에게 도덕의식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그 나라는 글을 모르고 예절도 모르지만 한번 명분이 정해지면 상하 구별이 분명하다. 예모(禮貌)가 매우 공순하고 경외(敬畏)하며 준봉(遵奉)하여 감히 게을리 소홀히 하지 않는다. 대개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³⁰⁾

‘명분’이란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분수 내지 규범을 가리킨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말이 『논어(論語)』에 보이듯이 유교사회에서는 명분이 매우

29) “性好跪坐, 或至終日不懈, 髻髻小童, 亦能危坐, 應對如成人.”(南龍翼, 『聞見別錄』, 風俗, 『性習』; 『국역 해행총제』 VI, 78면.)

30) “其國不知文不知禮, 而名分一定, 則上下截然, 禮貌甚恭, 敬畏遵奉, 不敢怠忽. 蓋以少有所失, 必至於死故也.”(李景稷, 『扶桑錄』, 10월18일 조; 『국역 해행총제』 III, 146~147면.)

중요시되었으며, 명분을 어기는 행위는 자신이 지켜야 할 분수를 벗어난 것으로, 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다.³¹⁾ 이경직은 명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물론 일본인이 견지한 상하 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전혀 위화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경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궁실(宮室)·거마(車馬)·의복(衣服)에는 준비귀천의 구별이 없다. 유복한 자는 신분이 미천하여도 금으로 집을 단장하고 비단을 밟고 다닌다. 뒷사람이 입을 옷을 아랫사람도 입고, 신분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을 천한 사람도 탄다.³²⁾

조선에서는 신분 및 관직에 따라 입어야 하는 옷의 종류 및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³³⁾ 도쿠가와 막부가 발포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에도 복제에 관한 규제와 탈것에 대한 규칙이 실려 있다.³⁴⁾ 그런데 조선 사절들의 눈에 일본에서는 주거나 의복 등에 있어 상하관계의 구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비록 그러하나 의무나 명령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상하 관계의 규범은 엄격하였다. 이경직뿐만 아니라 많은 사절들이 부지런히 명령을 수행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1748년에 일본을 다녀온 홍경해(洪景海)도 “곳곳에 심부름꾼들이 있으며, 여러 왜인들이 깨끗한 옷에 은색의 칼을 차고 대청에 꿇어앉아 있었다. 무릇 지시를 받으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부지런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³⁵⁾라고 하며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조선 사절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통신사 행렬을 보려고 항상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고 화려하게 꾸민 통신사 행렬은 당시

31) 이상 명분론에 대해서는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한국학술정보, 2006), 제5장 「명분론(名分論)의 성격과 양상」을 참조.

32) “然而宮室車馬衣服, 無尊卑貴賤之別, 富者雖下賤之人, 金銀粧屋, 足踏綺縠, 上之所着, 下亦着之; 貴之所乘, 賤亦乘之.”(李景稷, 『扶桑錄』, 10월18일 조; 『국역 해행총재』 III, 146~147면.)

33) 조선시대의 복제 및 가옥의 규칙에 대해서는 李肯翊 『練藝室記述』 別集 권13의 「冠服」 및 「第宅」을 참조.

34) 石井紫郎 編 『近世武家思想』 日本思想大系 27, 東京: 岩波書店, 1974, 456면 참조.

35) “處處有使喚, 諸倭潔服銀鈿, 跪坐廳邊, 凡有指揮, 奔走使令甚恪勤, 須臾不離.”(洪景海, 『隨槎日錄』, 卷上 장34b.)

일본인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사절들의 행렬을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절들 또한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서있게 늘어서 자신들의 행렬을 조용하게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통해 사절들은 규칙이나 명령을 잘 지키는 일본인의 규범의식을 포착하였다.

1624년에 일본을 방문한 강홍중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구경하는 아이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줄을 지어 앉아 있으며 종일토록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평소의 법령이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의 하인들이 뜰에서 열을 지어 있을 때의 떠드는 소리는 아무리 금지해도 그치지 않으니, 저 오랑캐들을 보면 또한 부끄러웠다.³⁶⁾

조용히 앉아 사절들의 행렬을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법령이나 규칙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한 사례는 사행록 도처에 보인다.

1636년에 사행한 임광(林統)도 “지나는 거리 곳곳에 구경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는데 몇 천만 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열을 지어 앉아 있으며 떠드는 소리가 전혀 없었으니, 엄하게 단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³⁷⁾라고 구경꾼들이 잘 통제되어 있는 모습을 인상 깊게 묘사하였다.

1748년에 사행한 홍경해는 사절들의 행렬을 조용하게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린아이가 만약 울면 손으로 입을 가로막아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반드시 손을 잡아 장난치지 않게 하니 풍속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었다.”³⁸⁾라고 쓰기도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런하게 열을 지어 앉아 있으며 소란을 부리고 대열을 지키지 않거나 대열에서 벗어나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국법이 엄함을 알 수 있었다.”³⁹⁾라고 기록하였다. 우는 어린아이의 입을 손으로 가로막는 일본

36) “至於觀光小兒，俯伏退跪，成行而坐，盡日無一聲，平時法令之嚴，蓋可知矣。一行下人列坐庭中，而喧聒之聲，雖禁不止，視彼蠻人，亦可愧也。”(姜弘重, 『東槎錄』, 甲子年10월10일 조; 『국역 해행총재』 III, 181면.)

37) “通衢處處，觀者駢闐，不知其幾千萬人，皆列坐成行，絕無喧譁之聲，其嚴束可知。”(林統, 『丙子日本日記』, 丙子年11월10일 조; 『국역 해행총재』 III, 335면.)

38) “孩提之童，若或啼泣則輒以手塞口，使不敢出聲；若或指點則亦必繫手，使不得雜亂，可見風俗之尙嚴也。”(洪景海, 『隨槎日錄』 中卷 장1앞.)

인의 모습은 사절들의 눈에 매우 신기하게 비쳤다. 1763년에 일본에 다녀온 김인겸(金仁謙)도 “어른은 뒤에 앉고, 아이는 앞에 앉아, 일시에 구경하되, 그리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를 아니 하고, 어린 아이 혹 울면, 손으로 입을 막아, 못 울게 하는 거동, 법령도 엄하다.”⁴⁰⁾라고 읊었다.

‘풍속이 엄하다’, ‘국법이 엄하다’, ‘법령이 엄하다’라는 말에서 짐작되듯이 사절들은 일본을 엄격한 규율로 통제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⁴¹⁾ 실제로 이러한 발언은 당시 일본인의 준법의식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절들이 통과할 때마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오후레가키’라는 통지가 사전에 발령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크게 웃는 것, 손가락질 등은 하지 말아야 하고 조용하게 구경해야 한다.”⁴²⁾라든가 “조선인이 지나갈 때는 손가락질하면서 웃지 말 것”⁴³⁾이라는 말이 발견된다. 사절들을 구경하는 일본 민중들은 우는 어린애의 입을 막기까지 하며 이 규율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미통신사의 제술관 남옥은 도덕보다 법이 중요시되는 일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천여 리의 길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백성이 감히 그 가지나 잎을 범하지 않고, 관인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자들은 종일토록 한걸음도 떠나지 않으며, 십자로를 지키는 자들은 등지고 서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일로써 보건대 그 법령의 엄격함을 가히 미루어서 알 수 있다. 법에 따라서 하고 덕에 맡기지 않으니, 나라를 영구히 전하려는 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어찌

39) “凡觀光之人皆整齊列坐，未有一人之紛亂失次攔出道中者，可見國法之尚嚴也。”(洪星海, 『隨槎日錄』 中卷 장28뒤.)

40) 金仁謙, 『일동장유가』 권3, 갑신년 1월20일 조;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사, 2007, 271면.

41) 전반적으로 사절들은 일본을 법이 엄격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법제도에 대한 사절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줄고, 『사행록을 통해서 본 일본 법제도에 대한 인식』, 『열상고전 문학연구』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참조.

42) “高聲高笑ゆひさしなと不仕，物靜ニ見物可仕候。”(原島陽一 編, 『江戸町觸集成』 第3卷, 塙書房, 1995, 77면.)

43) “朝鮮人通り候節，ゆひさし笑申間敷候事。”(『江戸町觸集成』 第3卷, 537면; 第5卷 241면 및 286면 참조.) 이 금지사항을 포함해 조선 사절을 구경하는 일본 민중과 오후레가키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루사와 아키라도 언급한 바 있다(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옮김, 앞의 책, 228면). 더 나아가 그는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조선 사절의 방문 외에도 제레나 축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질서유지를 위해 민중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위의 책, 225~230면).

능히 그 백성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⁴⁴⁾

“법에 따라서 하고 덕에 맡기지 않”다는 말에 ‘법령’이 엄한 일본에 대한 조선 문인의 인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덕’이 아닌 ‘법’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목도한 경험은 남옥에게 통치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IV. 헌신적 행위와 군대질서

조선 사절들은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일본인들의 모습 너머에 전쟁터에서 움직이는 군대의 모습을 떠올렸다.

1711년에 사행한 임수간(任守幹)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태수는 모두 세습이므로 아직 어리고 어리석어서 진퇴(進退)하고 배읍(拜揖)을 할 때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그 봉행(奉行)들이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공사(公事)를 계획하는 것이 집안일처럼 하니, 이 나라가 편안한 것은 이 때문이다.⁴⁵⁾

다이묘를 보좌하는 신하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세습제임에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왜인은 재력(材力)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최하의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하지만 일찍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함부로 날뛰었던 것은 칼이나 총포를 잘 다루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법령이 매우 엄격하여 꿩는 물이나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사양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44) “千餘里夾道植木，民不敢犯其枝葉，及從官人奉履者，終日不離一步。把守十字街者背立而不回頭等事。觀之，其法令之嚴可推而知。任法而不任德，以是傳國久遠者不如此，安能制其民哉？”(南玉, 『日觀記』, 『總記』, 刑訴;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587면.)

45) “太守皆世襲，故或稚駘，進退拜起之間，多周章失措，難以稱職。其奉行輩能夙夜不懈，區畫公事，無異家事，故其所以全安者此也。”(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해행총제』 IX, 94면.)

이 글을 쓴 임수간은 물론 임진왜란을 경험하지 않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일본의 군대를 직접 본 적도 없다. 그런데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일본인의 모습은 어딘가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무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의 규율의식과 전쟁터에서의 일본 군대의 행동을 연결하는 사례는 사행록에 종종 보인다.

일본인의 독특한 규범의식을 잘 파악하고 ‘군법(軍法)’에 의해 통제된 일본 사회를 예리하게 관찰한 사람이 신유한이다.⁴⁷⁾ 그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상하관계를 준수하여 윗사람의 명령을 게으르지 않고 실행하는지, 자신이 직접 일본에서 본 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사신 행차의 왕래 길에서 여러 지대관(支待官), 태수, 봉행 이하의 사람들 중에는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인사(人事)를 모르는 이도 많이 있는데, 그 시중꾼들은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허리를 굽히고 일하며 명령을 듣고 받드는 것이 한 자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칼을 차고 문을 지킬 때는 문 안에서 단정히 앉아 밤새도록 게을리 하지 않고, 차를 끊어 대접할 때에는 화로 앞에서 숯불을 피우며 잠시라도 떠나지 않는다. 부르면 메아리처럼 응답하고 매질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처리된다. 길을 끼고 구경하는 자들은 모두 정로(正路)의 옆에 있으며, 키가 작은 사람은 맨 앞에, 조금 키가 큰 사람은 두 번째 줄에, 더 큰 사람은 맨 뒤에 앉아 차례대로 대열을 만들고 가지런히 대열을 지키며 떠들지도 않는다. 수 천리 보아도 망동(妄動)하여 정로(正路)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⁴⁸⁾

46) “蓋倭人材力綿薄，不及我國之最下者，而亦嘗跳梁於東土者，非特稍長於劍砲也，其法令嚴酷，雖赴湯火而不辭。”(任守幹, 『東槎日記』, 『聞見錄』, 『해행총제』 IX, 94면.)

47) 신유한의 이 발언은 선생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마에다 츠토무(前田勉)는 일본이 ‘군법’에 의해 통치되어 있다는 신유한의 이 말을 거론하면서 근세일본사회에서 ‘군법’에 의한 지배가 도쿠가와 시대의 통치방식에도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前田勉, 앞의 책, 序章 第二節 ‘兵營國家と兵學’ 참조). 이혜순은 “무엇보다 그(신유한을 말함-인용자)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의 규율적인 행동과 청결함이었다”라고 하여 신유한이 규율을 잘 지키는 일본인에게 관심을 보였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그들(일본인을 말함-인용자)이 보여준 질서 정연한 모습은 일본인들의 시민 의식이 이미 상당히 높았음을 말해 준다”라고 지적하였다(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208면).

48) “使行往來之路，見支持諸官，太守奉行以下，多有庸孱癡騃，不省人事者，而其徒不敢仰視，匍匐而行，聽令承使，不失尺寸。帶劍而司門，則兀坐門內，達夜無倦，設茶而待，進則擁爐爇炭，頃刻不離。凡有所呼，應之如響，不用答扑，隨事皆辦。夾路觀光者，悉坐正路之外，小者居前，稍大者爲第二行，又其大者在後，次次爲隊，肅整無譁，數千里所見，無一人妄動犯路。”(申維翰, 『海遊錄』下, 『聞見雜錄』, 『국역 해행총제』 II, 57면.)

정해진 규율을 엄숙히 지키고 주어진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일본인의 규범의식이 평온한 사회질서를 밑에서 지탱하고 있다고 신유한은 지적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규범의식이 군대규율에서 비롯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개 인심과 속습(俗習)이 모두 손무(孫武)와 양저(穰苴)의 군사와 같으며, 이는 예교(禮敎)가 있어서 가지런한 것은 아니다. 나라의 군주와 각주 태수의 정치는 한결같이 병제(兵制)에서 비롯되었으며, 대소(大小)의 백성들이 보고 익숙해지는 것을 한결같이 군법(軍法)대로 한다.⁴⁹⁾

일본인들의 행동규범의 본보기는 『삼강행실도』와 같은 ‘예교’에 의한 교화를 목적으로 삼은 도덕교과서가 아니라 ‘군법’이었다. 신유한은 군사규율을 사회의 말단까지 침투시킴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모습에 큰 위화감을 가진 것이다.

일본인의 규범의식은 신유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1748년 일본 사행에 갈 홍계희(洪啓禧)에게 송서(送序)를 보냈는데, 송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백성이 살아가면서 복종하고 익힌 것이 본성이 되고 돈독히 믿는 것이 풍속이 되니, 죽음이 있어 범하지 않고 분한(分限)이 있어 넘지 않아 이로써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몸이 팔을 부리는 것과 같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아서 먼지 한 점 일으키지 않고서 만민을 모을 수 있습니다.⁵⁰⁾

“몸이 팔을 부리는 것과 같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한서(漢書)』에 나오는 구절로 사회가 잘 통제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상태를 칭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명령에 잘 복종하는 일본

49) “蓋其人心俗習，皆如孫武穰苴之軍，此非有禮敎而齊之也。國君與各州太守之政，一出於兵制，而大小民庶，所見而習之者，一如軍法。”(申維翰, 『海遊錄』下, 『聞見雜錄』; 『국역 해행총제』 II, 57~58면.)

50) “民生而服習成性，篤信成俗，有死而無犯，有分而無越，所以上之使下，如身之使臂，臂之使指，一塵不動，萬民可集。”(申維翰, 『靑泉集』 권4, 『奉送通信正使洪公啓禧往日本序』, 한국문집총간 200, 307면.)

인이라는 이미지는 신유한의 기록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1748년 종사관으로 사행한 조명채는 귀국 후에 행해진 국왕과의 인견에서 “예악문물(禮樂文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규율이 매우 엄격해서 관장(官長)을 맡고 있는 자는 한 번 명령이 내려지기만 하면 수화사지(水火死地)에 있더라도 감히 어기지 않습니다.”⁵¹⁾라고 보고하였다. 이 발언도 “끓는 물이나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사양하지 않”다는 임수간의 말과 상통한다. 조명채 또한 규율을 절대 어기지 않는 일본인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다.

1748년 사행원 일행은 귀국한 후에 일본에서의 견문기록을 조정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대체로 모두 군법(軍法)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워 법도를 수명(修明)하였으므로 의복(衣服)과 포설(鋪設)에도 모두 법제가 있고 민졸(民卒)의 장물(章物)에도 아울러 표지(標識)가 있어서 향리(鄉里)의 문지기에게 묻지 않더라도 무슨 고을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 사행이 도착하는 곳마다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없었고 회케(餼饋)를 빠뜨리는 일이 없어 우리나라와 견주어 보면 규모와 법령이 정칙(整勅)되었을 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나라에는 과거(科擧)로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없고 모두 세습(世襲)하고 있었다.⁵²⁾

여기서도 일본이 ‘군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 사절들을 조용하게 구경하는 일본인의 모습과 사절들이 가져 간 선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히 운반하는 모습을 통해 규율에 대한 준수가 철저히 지켜져 있음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1763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원중거(元重擧)는 승사록(乘槎錄)에서 여러 일꾼들이 큰 돌이나 나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51) “禮樂文物，無足言者，而紀律則甚嚴，爲其官長者，苟有一令，雖水火死地，莫敢違越。”(『承政院日記』英祖 24년 8월 5일.)

52) “大體皆以軍法立國，法度修明，衣服，鋪設皆有法制，民卒，章物并有標識，雖不問鄉里，望而知其爲某邑，使行所至無譁，餼饋無關，較視我國，規模法令不齊整勅，國無科選，皆以世襲。”(『英祖實錄』24년 閏7월 30일; 孫承詒 編, 『韓日關係史料集成』 권29, 景仁文化社, 2004, 136면.)

선두에 있는 사람이 ‘예사(曳沙)’라고 소리를 하면 뒤에 하는 사람들이 비록 수십 명이어도 가지런하게 ‘예사’라고 소리를 낸다. 힘을 가벼이 쓸 때는 ‘예사’라는 소리도 가볍고, 크게 힘을 쓸 때는 ‘예이사(曳伊沙)’라고 소리치는데 응답하는 소리 또한 똑같다. 급할 때는 손을 휘두르고 몸을 흔들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하는데, 응답하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한다. 그 소리의 크기와 속도, 물건의 움직임, 몸의 동작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어긋나거나 틀어지는 것이 절대 없다. 혹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하고 힘하든 쉽든 피하지 않는다. 대개 지난날 저들이 우리 땅에서 날뛰었던 것은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⁵³⁾

여러 일꾼들이 ‘예이사’라는 소리에 맞춰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일본 군대의 모습을 방불케 한 것이다.

V. 결론

원증거는 『화국지』에 수록된 「인물」이라는 항목에서 일본 백성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본업을 편안히 여기고 기쁘게 분수를 지키며 일정한 규율을 지켜 감히 한 치도 나아가지나 물러나지 않는다. (...) 부지런히 일하며 태만하지 않고, 하나를 오로지 하며 잡스럽지가 않다. 중일토록 위좌(危坐)하고 있어도, 몰래 게으름 피거나 허풍하는 기색이 없다. 번고가 있으면 혹 밤을 새우고 잠을 자지 않는데 변함 없이 정신이 또렷하다. 일을 만나면 힘을 다해서 일제히 하고 각자 힘을 다하며, 남에게 미루고 맡기거나 시기하고 꺼리는 습관이 전혀 없다.⁵⁴⁾

53) “先者喁曳沙，在後者雖數十人齊聲曳沙，輕用力則曳沙之聲亦輕；大用力則曳伊沙，應亦如之。急則揮手奮身努目而呼之，應者亦如之。隨其聲之高低緩急，物之運動，身之俯仰，舉作一人一力，絕無差池緩緊之不同者。其或分掌一事者則自辨一事，不避險易。蓋往日之跳梁似用此也。”(元重擧, 『乘槎錄』, 계미년 10월 25일조;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91면.)

54) “安本業而喜守分，守一定之規，而不敢進一寸退一寸。 (...) 勤勞而不忘，專一而無雜，終日危坐，無偷惰呵欠之色，有故則或至達宵不寐，而常自惺惺，遇事則用力齊一，各自盡已，而絕無推委枝

서론에서 말했듯이 도덕성에는 주변 사람을 감화하는 전파력이 있다. 원중거 또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일본인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까닭으로 인황(人皇)은 이것을 이용하여 무의의 정치[無爲之治]에 이르렀으며, 히데요시는 이것을 이용하여 천하의 막강한 도적이 되었다. 이에야스가 지위에 오르고 나서는, 또한 각기 정해진 분수를 소리없이 조용히 지켰는데 마치 두터운 덕과 넓은 도량이 있어서 몸소 이끌어 인도한 듯하였다. 그런즉 기월지치(暌月之治)가 손바닥 위에서 운영될 수 있었다.⁵⁵⁾

원중거는 일본의 위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본인의 헌신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았다. ‘인황’은 신무천황(神武天皇)을 가리킨다. ‘무의의 정치’는 위정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다스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유교에서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간주된다. 무가정권이 탄생하기 이전 천황이 통치한 일본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원중거는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을 통일한 두 임금 또한 일본인의 도덕규범을 잘 이용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전쟁터에 보내면 아무리 엄격한 군대규율이라도 잘 지키기 때문에 강대한 군인집단을 만들 수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근면하고 순순히 법에 종속되는 일본의 국민성을 이용하면 반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중거는 전쟁에도 평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도덕규범의 특질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사절의 입장에서 보면 에도시대의 일본에 오륜도덕은 없었다. 덕업상권(德業相勸: 덕행을 서로 권장하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을 서로 바로 잡는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를 지켜 사람과 사귀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재난을 당할 때 서로 도와준다)과 같은 조선에서 널리 보급된 도덕적 원

忌之習.”(元重學, 『和國志』 卷1, 「人物」, 41면; 박재금 옮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55면.)

55) “是故人皇用之而致無爲之治, 秀吉用之而爲天下莫強之寇, 及至家康駕之則又各守定分, 寂然無聲, 如有厚德弘量躬率而導之, 則暌月之治可運於掌.”(元重學, 『和國志』 卷1, 「人物」, 42면; 위의 책, 55면.)

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인의 상하관계도 조선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역시 달랐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원리에는 나름대로의 규범의식이 존재하였다.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심, 규율을 확실히 준수하는 준법의식, 가족보다 사회집단에의 헌신성이 중요시되는 풍습 등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경험을 통해 형성된 일본인의 독특한 도덕의식은 사절들의 내면에 도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모종의 위화감을 품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1) 국내자료

『東文選』

『英祖實錄』

『국역 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82.

金正國, 정호훈 역, 『경민편』, 아카넷, 2012.

南玉, 『日觀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_____, 김보경 옮김, 『日觀記-벗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南龍翼, 『扶桑錄』, 『국역 海行摠載』 V·VI 所收

申維翰, 『海遊錄』, 『국역 海行摠載』 I·II 所收

孫承喆 編, 『韓日關係史料集成』 권29, 景仁文化社, 2004.

元重學, 『和國志』; 李佑成 編, 『和國志』, 亞細亞文化社, 1990.

_____, 박재금 옮김, 『和國志-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_____, 『乘槎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_____, 김경숙 옮김, 『乘槎錄-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李景稷, 『扶桑錄』, 『국역 海行摠載』 III 所收

李肯翊 『練藜室記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任守幹, 『東槎日記』, 『국역 海行摠載』 IX 所收

최강현 역주, 『일동장유가』, 보고서, 2007.

洪景海, 『隨槎日錄』, 규장각 소장.

(2) 국외자료

武陽隱士 著, 本庄榮治郎 校訂·奈良本辰也 補訂, 『世事見聞錄』, 東京: 岩波文庫, 1994.

山鹿素行, 『山鹿語類』; 井上哲次郎 監修, 佐伯有義·植木直一郎·井野邊茂雄 編集, 『武士道全書』 제3권, 東京: 國書刊行會, 1999.

西川如見 『町人囊·百姓囊·長崎夜話草』, 東京: 岩波文庫 1985.

石井紫郎 編 『近世武家思想』 日本思想大系 27, 東京: 岩波書店, 1974.

新渡戶稻造, 矢內原忠雄 역, 『武士道』, 東京: 岩波文庫, 2004.

喜田川守貞, 『類聚 近世風俗志 下』, 東京: 吉川弘文館, 2012.

2. 단행본

- 금장태, 『유교사상의 문제들』, 한국학술정보, 2006.
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옮김,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소화, 2004.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前田勉, 『近世日本の儒學と兵學』, 東京: ぺりかん社, 1996.

3. 논문

- 김영호,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조선판 『삼강행실도』 번역과 의도』, 『일어일문학 연구』 제79집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1, 127~142면.
박상희, 『사행록을 통해서 본 일본 법제도에 대한 인식』, 『열상고전문학연구』 제49집, 열상고전문학연구회, 2016, 507~534면.
최박광, 『조선통신사와 일본문학 - 『삼강, 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99~122면.

The moral standard of Samurai Society
- The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the Japanese moral consciousness -

Park, Sang-whi

The Korean emissaries who had been to Japan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Japanese had worked with diligence and obeyed their superiors readily. The Korean emissaries saw that there was a characteristic moral consciousness peculiar to the Japanese behind their code of condu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Korean emissaries had understood the Japanese moral consciousness. Firstly, this paper confirms that Korean emissaries had recognized that Oryun peculiar scarcely existed in Japan. Next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Korean emissaries had highly praised the Japanese sense of hierarchical relationship, their moral consciousness and their law-abiding spirit.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ean emissaries had understood the Japanese moral standard which had been formed through the experience of war,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y had connected the Japanese moral consciousness with the army discipline.

keywords: Korean emissary, Sahaengrok, Morality, Oryun(five moral imperatives),
Army discipline, Social norms.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 ~ 2018. 11. 10. 계재결정: 2018. 11. 10.
